



삼국유사 탐상편민장사영취사조의성격

| | |
|--------------------|---|
| 저자 (Authors) | 한기문 |
| 출처 (Source) |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6 , 2015.05, 5-34(30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57421 |
| APA Style | 한기문 (2015). 삼국유사 탐상편민장사영취사조의성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6, 5-34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8 09:38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 탐상편 「민장사」 · 「영취사」 조의 성격

한 기 문*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V. 靈鷲寺의 창건과 지방 그리고 왕경 |
| II. 탐상편 敏藏寺, 靈鷲寺 條의 자료 검토 | V. 맺 음 말 |
| III. 敏藏寺의 성격과 신앙 | |

[한글요약] 『삼국유사』 탐상편 민장사, 영취사 두 사원을 통해 신라사회에서 사원의 왕경과 지방민에 대한 사상과 신앙기능의 일면을 이해하였다.

일연이 이용한 민장사와 영취사에 대한 원천 자료는 당시까지 남아 있던 寺中記였다. 왕경 내 민장 각간의 원찰에서 출발한 민장사는 경덕왕대 관음신앙 영험이 강조되었고, 신라말에는 미타정도 염불신앙이 강조되어 왕경민의 사원으로 되었다.

영취사는 신문왕이 울주 지방민을 위무 지배하려는 의도와 영취산의 범화사상과 신앙의 연원지로서의 위상을 수렴하려고 성립하였다. 지통, 원효, 그리고 연희 등의 고승이 이곳에서 시대에 맞게 범화사상을 해석하여 왕경 사회에 영향을 끼친 사원이었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 논저 :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韓國禪學』 2, 2001 ; 「新羅 下代 興輪寺와 金堂 十聖의 性格」, 『新羅文化』 20, 2002 ;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공저), 2007 ; 「신라말 선승비문과 선종(禪宗)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 『佛敎研究』 41, 2014 ; 외 다수

[영문요약] On the record of Minjangsa & Yeongchuisa in 『Samgukyusa』 we study the function of thought and belief that temples have for King-Capital and people in Shilla. Ilyeon's basic source for two temples is 『Sajunggi(寺中記)』 existent in the time.

Minjangsa was official status Gakgan Minjang's private temple(願刹) in King-Capital. It emphasized Gwaneum-Belief, Spiritual-Miracle in King Gyeon gdeok. In the end of Shilla was spread Amitajeongto Shouting Belief(阿彌陀淨土念佛信仰). Minjangsa became the temple for the King-Capital residents and the belief.

Yeongchuisa was on King Shinmun's aim for consolating people in Ulju(蔚州). The temple had the meaning as Beobhwa Dogma and Beobhwa Belief starting point in Yeongchui Mt. Virtuoso priests(Jitong(智通), Ueonyo(元曉), Yeonhoi(緣會)) explained Beobhwa Dogma for the time at the temple. They affected King-Capital society.

[주제어] 민장사(Minjangsa), 영취사(Yeongchuisa), 일연(Ilyeon), 관음신앙(Gwaneum-Belief), 영험(Spiritual-Miracle), 법화신앙(Beobhwa Belief)

I. 머리말

신라 사회에 불교 사상이 지방과 왕경에 자리 잡는 데 그 기반을 제공한 것은 사원이었다. 사원은 불교 사상의 물질 기초로서 수행자를 위한 시설과 장엄, 경제 기반 등을 갖춘다. 여기에 大聖이 출현한 영험이 더해지면 대중성이 확보되어 사원의 위상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일연은 대체로 중국 고승전의 편목을 받아들여 『삼국유사』를 저술하는데 紀異篇을 제외하면 다른 독특한 것은 바로 탑상편이다. 그는 탑과 상의 영험을 소개하여 사원의 위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탑상편의 구성과 의미 그리고 각 항의 분석에 대한 논고는 다수 나와 있다. 특히 미술사적 관점과¹⁾ 사상사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있어²⁾ 그 의의와 자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 하지만 각 항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아직 있는 것도 있다. 사원 성립에서 지방과 왕경 그리고 민과의 관계에 대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인데 그 중 민장사, 영취사가 그러하다. 민장사는 왕경 내에 설치된 귀족의 사가위사 사원으로 출발하여 왕경민과의 여러 관계를 맺고 있다. 영취사는 지방사회에 관청터를 옮기고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그 일대 영취산의 신앙과 사상을 수렴한 예이다.

본고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탐상편의 민장사, 영취사 두 사원을 통해 신라 사회에서 사원이 왕경민과 지방민에 대해 갖는 기능의 일면을 파악한다. 이를 위한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탐상편 전체의 내용을 사원 성립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연의 의도를 짐작한 후 두 사원의 의미를 이해한다. 나아가 『삼국유사』 내의 다른 편목과 연계되는 자료도 검토하여 보

-
- 1) 洪潤植, 「『三國遺事』와 塔像」, 『佛教學報』 17, 1980 ; 李基白, 「三國遺事 塔像篇의 意義」,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7 ; 문명대, 「三國遺事 塔像篇과 一然의 佛教美術史觀」, 『강좌미술사』 1, 1988 ; 秦弘燮, 「『三國遺事』에 나타난 塔像-皇龍寺 塔像을 중심으로-」,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張忠植, 「『三國遺事』 三所觀音考」, 『天台宗田雲德總務院長回甲紀念 佛教學論叢』, 1999 ; 張忠植, 「『三國遺事』 塔像篇 體制의 檢討」, 『東岳美術史學』 2, 동악미술사학회, 2001.
 - 2) 辛鍾遠, 「新羅 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 金杜珍, 「新羅下代の 五臺山信仰과 華嚴結社」, 『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 1992 ; 金福順, 「新羅 五臺山 事蹟의 形成」, 『江原佛教史研究』, 小花, 1996 ; 高榮燮, 「『삼국유사』 「흥법」과 「탐상」의 성격과 특징」, 『『삼국유사』 「흥법」편 연구 “삼국의 초전불교와 그 특징” 신라 문화제학술논문집』 35,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충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장사의 왕경 내 역할과 성격 및 신앙, 영취사의 지방 사회에서의 기능, 그리고 왕경과의 관계와 사상과 신앙의 변화를 고찰한다. 미시적 사례 분석으로 사원을 통한 신라 사회의 모습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다행이겠다.

II. 탑상편 敏藏寺, 靈鷲寺 條의 자료 검토

『삼국유사』 탑상편의 전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일연이 인용한 자료와 영험신앙, 성립된 사명,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일람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 탑상편 구성일람

| | 조목명 | 인용자료 | 영험 | 사명 | 지명 |
|---|---------------|---|--------------------|---------------|----|
| 1 | 迦葉佛寢坐石 | 玉龍集, 慈藏傳, 諸家傳紀, 國史, 阿含經, 吳世文 歷代歌, 金希寧 大 歷法, 纂古圖 | 연좌석 | 황룡사 | 왕경 |
| 2 | 遼東城育王塔 | 三寶感通錄, 古老傳 | 진신사리 감응 | ? | 요동 |
| 3 | 金官城婆娑石塔 | 本記, 本國本記 | 파사석탑, 4면 5층탑 | ? | 김해 |
| 4 | 高麗靈塔寺 | 僧傳 | 보덕, 8면7층 영탑사명명 | 영탑사 | 평양 |
| 5 | 皇龍寺丈六 | 牒文, 別傳, 寺中記, 別本, 寺記 | 황룡사장육상 영험 | 황룡사 | 왕경 |
| 6 | 皇龍寺九層塔 | 慈藏本傳, 寺中記, 塔利柱記, 安弘 東都成立記, 國史, 寺中古記 | 황룡사구층탑 영험 | 황룡사 | 왕경 |
| 7 |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 | 金弼峿 聖德大王神鍾銘 | 황룡사중, 분황사약사상, 봉덕사중 | 황룡사, 분황사, 봉덕사 | 왕경 |

| | | | | | |
|----|------------------------|---|---|---|-----------------|
| 8 | 靈妙寺丈六 | 良志法師傳 | 장육존상 개금 | 영묘사 | 왕경 |
| 9 | 四佛山 掘佛 山 万佛山 | ? | 사방여래, 사 방불, 만불 | 대승사 창건, 굴불사 창건 | 상주, 왕경 |
| 10 | 生義寺石彌 勒 | ? | 석미륵 영험 | 생의사 창건 | 왕경 |
| 11 | 興輪寺壁畫 普賢 | ? | 보현보살 벽화 | 홍륜사 | 왕경 |
| 12 | 三所觀音 衆生寺 | 新羅古傳, 金仁夫傳 諸鄉老 | 중생사 관음 보살상 영험 | 중생사 | 왕경 |
| 13 | 栢栗寺 | 別傳 | 대비상 영험 | 백율사 | 왕경 |
| 14 | 敏藏寺 | 민장각간 사가위사 | 관음보살 영험 | 민장사 | 왕경 |
| 15 | 前後所藏舍 利 | 國史, 古記, 無衣子 留詩, 諺, 實錄, 義 相傳, 浮石本碑 | 내원당 불아진, 용왕당 | 해동왕사 창건, 태화사, 통도 사 | 개경, 서산 울주 |
| 16 | 彌勒山花 未 尸郎 眞慈師 | 國史 | 홍륜사 미륵상 | 홍륜사 | 왕경 |
| 17 |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 怛林林 | 白月山兩成成道記, 鄉傳, 古記 | 관음보살, 미륵, 아미타 영험 | 백월산남사 창건 | 강주 |
| 18 | 芬皇寺千手 觀音 盲兒 得眼 | ? | 분황사 좌전 벽 화 천수대비상 영험 | 분황사 | 왕경 |
| 19 |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調 信 | 地理志 | 낙산 금당 관 음상, 명주 익 령 정취보살관 음 응현) | 굴산사 창건, 낙산사, 정도 사 창건 | 명주 |
| 20 | 魚山佛影 | 古記, 寶林狀, 觀佛 三味海經 卷7, 高僧 傳, 法顯 西域傳, 大唐西域記 | ? | 만어사 창건 | 강주 |
| 21 | 臺山五萬眞 身 | 山中古傳, 唐僧傳, 三國本史, 別傳, 國 史, 古記, 寶川記 | 1만 관음, 1만 지장, 1만 대세 지, 5백 나한 | 원통사, 금강 사, 수정사, 백 련사, 화엄사, 보천암 화장사 | 명주 |
| 22 | 溟州 五臺山 寶叱徒太子 傳記 | ? | 동대 관음 1만, 남대 1만 지장, 서대 1만 대세 지, 북대 5백 대아라한, 중대 1만 문수 | ? | 명주 |

10 신라 왕경의 사찰 I - 『삼국유사』 「탑상」 편 연구

| | | | | | |
|----|---------------|---------------------------|---|-------------------|----|
| 23 | 臺山月精寺 五類聖衆 | 寺中所傳古記 | 자장 정암사 창건, 신희거사 호가원 사가창설, 관음 교시, 월정사 9층석탑, 오류성증관음, 지장, 대세지, 아라한, 문수 | 호가원 창건, 월정사 | 명주 |
| 24 | 南月山 亦名甘山寺 | 金堂主彌勒尊像火光後記, 彌陀佛火光後記 | 미륵상, 미타상 | 감산사 창건 | 왕경 |
| 25 | 天龍寺 | 討論三韓集, 俚云, 相傳, 信書願文 | 석가만일도량 | 천룡사 | 왕경 |
| 26 | 鑿藏寺彌陀殿 | ? | 미타전에 미타상, 신증상 조성 | 무장사 원성왕 부 효양 추모사찰 | 왕경 |
| 27 | 伯嚴寺石塔舍利 | 康州界任道大監柱貼, 古傳, 釋 秀立院中常規十條 | 백엄사 유래 호법신, 5층석탑, 진신사리 42날 봉안 사제 보로 매년 공양, 금당 약사여래 공양 | 백엄사 | 강주 |
| 28 | 靈鷲寺 | 寺中古記 | 영취사 창건 연기 | 영취사 | 울주 |
| 29 | 有德寺 | ? | 최유덕 사사위사, 최연위 유덕 진영과 비건립 | 유덕사 | 왕경 |
| 30 | 五臺山文殊寺石塔記 | 諸古老云, 白雲子記懸板 | 문수사 석탑 영협 | 문수사 | 명주 |

위의 표에서 보면 탑상편은 모두 30 조(항목)인데 여기에 보이는 사원은 도합 35 개소이다. 그런데 탑상편에 가장 많이 등

장하는 사명은 황룡사이다. 4 개조에 걸쳐 가섭불연좌석, 장육상, 구층탑, 종 등의 성립 순으로 항목을 나누어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사명은 분황사이다. 2 개항에서 약사불, 천수대미상의 영험에 대해 서술하였다. 홍륜사도 보현보살 벽화와 미륵상을 제시하였다. 나머지 사원에 대해서는 한 건식 언급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왕경이 14 항목으로 거의 반을 차지한다. 명주가 5 항목, 강주가 2 개, 나머지 평양, 상주, 공주, 김해, 창원, 울주 등으로 분포한다. 왕경 사원의 영험 사례를 가장 많이 채록하였다.

그 근거 자료는 國史, 古文書, 金石文, 懸板, 僧傳, 寺中記 등 다양하게 제시한다. 주로 승전과 사증기를 통해 영험사례를 제시하였다. 사증기는 현재는 전혀 전해지지 않지만 일연이 활동하던 13세기에는 사원이 폐사되어도 그 사원의 역사기록은 상당히 남아 있거나 유폐되었을 것이다.

영험 내용을 살펴보면 탐의 경우 7 사례, 불상은 20 사례, 종은 2 예를 들고 있다. 불상사례가 가장 많다. 불상은 불명을 알 수 없는 장육상 2 예, 관음보살 사례가 7, 보현보살은 1, 사방여래가 2, 약사여래도 2, 미륵상이 4, 미타상은 3 예 등이다. 탐상편에서는 관음신앙의 영험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중생사 관음보살, 백률사 대비상, 민장사 관음보살상, 분황사 천수관음, 낙산사의 관음상과 익령 발견 정취보살상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왕경의 중생사, 백률사, 민장사, 분황사 등 4 개소 사원의 영험을 중시하고 있다. 탐, 상, 종 이외에도 오대산의 대성상주, 백엄사의 호법신, 전후소장사리의 진신사리, 영취사 창건 연기설화가 된 매의 꿩에 대한 측은함에 관한 이야기 등의 사례도 있다.

그 중 민장사의 관음상에 대한 영험은 王京民의 現世 救難이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禺金里 가난한 여자 寶開가 아들 長春이 바다의 장삿군을 따라다녔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 민장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7일간 정성을 다해 기도드렸더니 장춘이 갑자기 돌아 온 것이다. 이러한 영험을 들은 경덕왕이 전지와 재물을 민장사에 시납하였다.³⁾ 일연은 민장사의 관음영험 사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영험사례는 了圓이 찬한 『法華靈驗傳』 卷下에 ‘黑風吹其船舫’ 이라題한 영험사례와 대략 비슷하다.⁴⁾ 그러나 전체적으로 탑상편의 것보다 관음신앙이 법화경 보문품에 근거한 것이

3) 『三國遺事』 卷3 塔像4 敏藏寺, “禺金里貧女寶開有子名長春 從海賈而征 久無音耗 其母就敏藏寺(寺乃敏藏角干捨家爲寺)觀音前克祈七日而長春忽至 問其由緒曰海中風飄舶壞 同侶皆不免 予乘隻板歸泊吳涯 吳人收之俾耕于野 有異僧如鄉里來 弔慰勤勤 率我同行 前有深渠 僧掖我跳之 昏昏間如聞鄉音與哭泣之聲 見之乃已屆此矣 日晡時離吳至此纔戌初 卽天寶四年乙酉四月八日也 景德王聞之 施田於寺 又納財幣焉”.

4) 了圓, 『法華靈驗傳』 卷下(『韓國佛教全書』 6,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4, p. 565), “新羅時有女 名寶開 居王京隅金坊 有一子 名長春 隨商舶 泛海而去 過期不知所之 朝夕思念 至於憔悴 幸聞普門示顯神通之力 假使黑風 吹其船舫 漂墮羅刹鬼國 稱其名故 卽得解脫 便生深信 就敏藏寺觀音像前 約一七日 精勤祈禱 至七日 忽感長春 執母手 驚喜哭泣 寺僧怪問所由 春曰離家泛海 忽值惡風 同船之人 皆葬魚腹 余獨乘一板 至於吳 吳人收之 奴使之耕於野田 忽有異僧來 謂曰憶汝國乎 余卽跪曰 有老母在 戀慕無極 僧曰若欲見母 隨我而來 言訖東行 余隨之 有一渠僧 乃執手超之 昏昏如夢 忽聞羅語 到此敏藏寺像前 雖審知我母 猶疑夢中矣 卽天寶四年{乙}酉四月八日申時離吳 戌時到此堂中 景德王 聞而敬重 優信賄 永充供養 每於月生八日 幸寺禮讚 永爲定式 寶開與長春 約結鄰里 清信士女 特成金字蓮經一部 每至春三月 爲立道場 敷宣妙理 精修禮敬 仰賽玄恩 見敏藏寺記及雞林古記略見傳弘錄”.

라는 점, 경덕왕이 경중하여 매월 초 8일에 이 절에 행행하여 예찬하는 것을 영원히 定式으로 삼았다는 것, 보개와 장춘도 이웃里的 淸信士女와 약속을 맺고 특별히 金字蓮經 1부를 완성하여 매년 춘 삼월에 도량을 열고 묘리를 펴고 예경하였다는 점 등이 더 상세하다. 천태종승 天頤이⁵⁾ 민장사의 관음 영험 사례를 법화경 보문품의 관음으로 강조하면서 추가된 것일 수도 있다.

요원은 이 사례 말미에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는데 『敏藏寺記』와 『鷄林古記』를 보았다고 하고 『傳弘錄』을 줄여 읽었다(略見)고 하였다. 탐상편 민장사 조에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연은 민장사기를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약견한 『전홍록』은 天頤이 편집한 『海東法華傳弘錄』 4권을 말한다. 일연은 천책과 같이 13세기에 활동한 인물이지만 천책의 저술을 보았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민장사기』와 『계림고기』에서 뽑아 탐상편 민장사조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장사조의 자료는 또한 피은편의 염불사조와도 관련된다. 남산 동록의 피리사에 거주하는 염불사가 도성 구석구석에까지 들리도록 낭랑하게 彌陀를 한결같이 염불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사망한 뒤에는 眞容을 흙으로 빚어 왕경에 있는 민장사라는 절에 모셔두었다.⁶⁾ 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왕경 360방

5) 요원의 『법화영험전』에는 요원 보다 앞서 생존한 天頤이 영험 사례를 수집한 『海東傳弘錄』에서 정리한 사례가 다수 전한다. 天頤은 1206년경 출생하여 1268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一然(1206~1289)과 거의 동시대이다. 그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서는 許興植, 『眞靜國師와 湖山錄』, 民族社, 1995 참조.

6) 『三國遺事』 卷5 避隱8 念佛師, “南山東麓有避里村 村有寺 因名避里寺 寺有異僧 不言名氏 常念彌陀 聲聞于城中 三百六十坊 十七萬戶 無不聞聲 聲無高下 琅琅一樣 以此異之 莫不致敬 皆以念佛師爲名 死

17만호에 들리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에 해당한다. 일연은 염불사조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마도 『민장사기』의 내용을 일부는 탐상편 민장사 조로 일부는 피은편 염불사 조로 분리한 것은 아닌가 한다.

영취사 조는 신문왕대 지방 사원의 창사에 대한 설화를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일연은 『寺中古記』에서 인용하여 영취사조를 구성하였다. 그 내용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신문왕 때 재상 忠元公이 葺山國 온천에 목욕하고 성으로 돌아올 때 屈井驛 桐旨野에 이르러 쉬었더니, 홀연히 한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쫓으니 꿩이 날아 금악을 넘어 간 곳을 알 수 없자 매의 방울 소리를 듣고 찾으니 굴정현 관가 북쪽 우물가에 매는 나무 위에 앉아 있고 꿩은 우물 속에 있는데 물이 핏빛과 같았다. 꿩은 두 날개를 벌려 새끼 두 마리를 안고 있었는데, 매도 또한 측은히 여기는지 잡지 않았다. 공은 이것을 보고 측은한 느낌이 있어 그 땅을 점쳐 물으니 절을 세울만하다고 한다. 왕께 아뢰어 그곳에 절을 세워 영취사라 하였다.⁷⁾

일연이 본 『사중고기』는 어떤 자료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일연은 피은편 낭지승은 보현수 조 ‘靈鷲寺記’에서 낭지가 赫木菴 터가 가섭불 당시 절터라 한 말과 원성왕 때 대덕 緣會

後泥塑眞儀 安于敏藏寺中 其本住避里寺 改名念佛寺 寺旁亦有寺名讓避 因村得名”.

- 7) 『三國遺事』卷3 塔像4 靈鷲寺, “寺中古記云 新羅眞骨第二十一主神文王代 永淳二年癸未(本文云元年誤)宰相忠元公 葺山國(卽東萊縣亦名萊山國)溫井沐浴 還城次到屈井驛桐旨野駐歇 忽見一人放鷹而逐雉 雉飛過金岳 杳無蹤迹 聞鈴尋之 到屈井縣官北井邊 鷹坐樹上 雉在井中 水渾血色 雉開西翅 抱二雛焉 鷹亦如相 惻隱而不敢攫也 公見之惻然有感 卜問此地云可立寺 歸京啓於王 移其縣於他所 創寺於其地 名靈鷲寺焉”.

가 이 산에 와서 살면서 朗智의 전기를 지으니 세상에 유행했다는 구절을 인용·소개하였다.⁸⁾ 영취사 창건내용은 『사중고기』에서, 영취산 낭지와 연회에 관한 건은 『영취사기』에서 인용하였다. 앞의 민장사에 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법화영험전』을 통해 보면 『민장사기』가 그 원천자료였던 것처럼, 영취사에 대한 기록도 구체적으로 『靈鷲寺記』가 전해져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근거자료로 든 『사중고기』도 거기서 인용한 것이다.

또한 일연은 피은편 연회도명 문수점 조에서 “고승 연회는 일찍이 영취산에 숨어 살면서 언제나 법화경을 읽고 보현관행을 닦았는데 뜰의 연못에는 항상 연꽃 몇 떨기가 있어 사철 시들지 않았다” 라 하면서 거기에 ‘협주’를 붙여 “지금의 영취사 용장전이 연회의 옛 거처이다” 고 하였다.⁹⁾ 이도 앞의 낭지관련 기사와 같이 『영취사기』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연회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일연은 탐상편에서 영험관련 내용을 통해 사원의 위상을 높이려 하였다. 탐상편의 민장사, 영취사 조 자료를 근거자료의 원천을 추적하면서 검토한 결과, 민장사는 『민장사기』가 원천자료이고 피은편 염불사조도 같은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탐상편 영취사에 관해서 『영취사기』가 근본자료이다. 여기에서 영취사 창건, 피은편의 영취산에 머문 낭지, 그리

-
- 8) 『三國遺事』 卷5 避隱8 朗智乘雲 普賢樹, “鄉人乃號其庵曰赫木 今赫木寺之北崗有古基 乃其遺趾 靈鷲寺記云 朗智嘗云 此庵址乃迦葉佛時寺基也 堀地得燈缸二 隔元聖王代 有大德緣會來居山中 撰師之傳行于世”.
- 9) 『三國遺事』 卷5 避隱8 緣會逃名 文殊帖, “高僧緣會 嘗隱居靈鷲 每讀蓮經修普賢觀行 庭池常有蓮數朵 四時不萎(今靈鷲寺龍藏殿 是緣會舊居)”.

고 연회 등의 고승 관련 내용도 나온다.

Ⅲ. 敏藏寺의 성격과 신앙

일연은 민장사의 유래는 협주에서 ‘敏藏角干이 捨家爲寺한 것’이라 하였다. 민장 각간의 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각간이 최고 관등이므로 신라 귀족임에는 틀림없다. 왕경 내에 민장사를 창건할 정도라면 그 지위는 매우 높았다.

『삼국유사』에는 사가위사의 예가 더러 보인다. 慈藏이 사가위사 하여 元寧寺로 한 경우가 있다. 같은 탐상조 有德寺도 최유덕이 사가위사한 절이다. 甘山寺도 「감산사불상광배명」에 따르면 金志誠이 田莊을 내어 가족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었다. 이처럼 신라 유력 귀족은 자신의 집이나 전장을 내어 사원으로 하여 주로 先人의 追福 원찰로 하였다.¹⁰⁾ 이러한 원찰은 대개 왕경 부근에 마련하는 것이 상례인데 민장사는 왕경의 里坊 내에 존재한다.¹¹⁾ 왕경 지역을 현 경주시가 지역으로 보면 63개소의 사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삼국시기부터 지속된 사원은 30개소이다. 사원의 왕경 내 증가는 주로 사가위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¹²⁾

왕경내에는 흥륜사, 황룡사, 사천왕사 등 호국 관련 법회를

10) 齋藤 忠은 신라 사원 건립의 사정으로 先人 追福과 國家 鎮護로 크게 분류 하였다(『朝鮮古代文化の研究』, 地人書館, 東京, 1943).

11) 최근 황룡사지 부근 사지에서 ‘味吞’ 문자와가 발견되었다. 『삼국유사』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 조에 ‘致遠乃本彼部人也 今黃龍寺南 味吞寺南有古墟云 是崔侯古宅也 殆明矣’라 함에 미탄사가 왕경내에 존재한 사원임을 알 수 있다(불교문화재연구소, 『경주 미탄사지 2차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14. 6.).

12)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7.

개최한 國刹이 중심을 이룬다.¹³⁾ 중대에는 왕실 奉祀 기능을 담당한 관사인 成典寺院들이¹⁴⁾ 사방 官道를 통해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되고 국가의례를 담당하였다.¹⁵⁾ 그런데 민장사가 왕경내 존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금리에 사는 보개가 민장사 관음에 예불하러 온 사실에 있다.

우금리는 앞서 살핀 민장사 관음 영험내용과 비슷한 자료인 『법화영험전』 黑風吹其船舫 조의 기사에 ‘王京禹金坊’으로 적혀있어 왕경 내임이 분명하다. 신라에서 왕경의 행정구획으로서 部의 아래에 里制가 처음 수용된 것은 469년(자비왕 12)이다. 里와 坊의 관계에 대한 기록에 혼란이 있어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시점에 왕경이 6부 35리 360방으로 정리되다가 다음 어느 단계에 인구증가로 里만 55리까지 증가한다. 늘어난 20리 속에는 방은 들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남산의 避里도 처음은 避村에서 늘어난 里에 속하면서 피리가 되었지만 왕경 중심부는 아닌 것이다.¹⁶⁾ 그런데 천책은 ‘禹金里’를 ‘王京禹金坊’으로 표현하였다. 고려시기에는 방리제가 시행되어 신라와는 달리 방이 더 큰 범위를 의미한다.¹⁷⁾ 그런 까닭에 원자료의 ‘우금리’를 ‘우금방’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우금리는 그

13)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 왕경의 구조와 체계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7, 2006.

14)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 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 1983.

15) 尹善泰, 「新羅의 成典寺院과 衿荷臣」, 『韓國史研究』 108, 2000.

16) 주보돈, 「『三國遺事』 ‘念佛師’ 條의 吟味」, 『명예보다 求道를 택한 신라인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1,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pp. 35~40.

17) 『高麗史』 卷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顯宗 9年 定五部坊里 참조. 정리하면 5部35坊344里가 된다. 朴龍雲, 「開京의 部坊里制」,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참조.

하부에 방를 거느린 전통적으로 왕경 중심부에 속한 지역일 것이다.

따라서 민장사의 구체적 위치 또한 우금리 내에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민장 각각의 저택도 같은 里內에 존재하였을 것이다. 예속민은 민장 각각의 원찰과 저택을 중심으로 같은 里內 혹은 인근 리내로 퍼져 있었을 것이다.¹⁸⁾ 보개가 아들 장춘의 소식이 끊어지자 바로 같은 리내의 가까운 민장사를 찾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관음영험이 반영한 경덕왕대에는 왕경이 里坊制로 정비되었다. 또한 가난한 보개가 왕경내에 거주하면서 아들 실종의 구난을 위해 관음전에 예불한 사실로 보아 왕경민의 계층분화가 일어났다. 보개의 아들 장춘은 멀리 해외무역상을 따라 나갔다. 경덕왕대 해외무역에 나설 수 있는 주체는 귀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¹⁹⁾ 장춘이 따라 나선 무역상 주체도 민장 각각의 집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보개의 아들 장춘이 돌아 온 영험이 알려지자 경덕왕이 전지와 재물을 민장사에 내어 주었다.²⁰⁾ 『법화영험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덕왕은 재물을 내어 영원히 공양에 충당하였다. 매월 초 8일에는 민장사에 행행하여 관음을 예찬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定式化 하였다. 국왕이 공양을

18) 귀족과 일반민의 공존적 양상으로 지적하였다(鄭炳三, 『統一新羅 觀音信仰』, 『韓國史論』 8, 1982).

19) 김창석은 장춘이 왕경민으로 海商에 종사하였고 그 해상의 주도층은 진골 귀족으로 보았다(『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연구』, 일조각, 2004, p. 209).

20) 현실불만의 안전판과 같은 관음신앙의 기능을 왕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나아가 민중의 안태를 도모하였다(洪承基, 『觀音信仰과 新羅社會』, 『湖南文化研究』 8, 1976).

충당하고 매월 親行하는 사찰로 법제화했다. 더구나 보개와 장춘은 이웃 청신사녀 곧 남녀신도와 約結하고 특별히 金字蓮經 1부를 만들어 매년 춘 삼월에 도량을 열어 묘리를 펴고 예경하여 우리러 그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 민장사는 국왕이 매월 친행하는 사원이 되었다. 왕경 내에서 里의 사원 범위를 넘어 이웃 里의 여러 신자들과도 모임을 가지고 매년 봄에 도량을 열었다.

이 기사를 어디까지 신빙해야 할 것인지는²¹⁾ 차치하더라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민장사가 귀족 개인과 예속민의 원찰의 성격을 벗어나 국왕 혹은 왕경민의 사원으로 성격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경덕왕대 金大正 개인 원찰로 출발한 佛國寺와 石佛寺가 국왕의 지원으로 완공하여 국가 사원으로 전환된 예와²²⁾ 상통하는 것은 아닐까. 왕경에 많은 사찰이 창건되는데 지방의 불사창건에 대응한 면도 있고 왕경 불국토사상이 투영된 특색도 보인다.²³⁾ 경덕왕대에는 국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귀족의 원찰경영을 국왕과 민 중심으로 환원하여 귀족층을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음도

21) 『법화영험전』의 찬자 요원은 1348년 이전부터 1378년까지는 생존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중국과 우리나라 법화신앙에 관한 설화를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삼분과의를 갖추면서도 정종분에는 법화경의 수품별에 따르는 서술방법을 취하였다(梁銀容, 「高麗 了圓撰 法華靈驗傳의 研究」, 『文山 金三龍博士華甲紀念 韓國文化의 圓佛敎思想』, 1985).

22) 경덕왕의 전제정치 옹호와 미화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李基白, 「古代政治思想」, 『韓國思想史大系』 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79) 김대성이 중심이 되어 개인적인 신심과 경제력으로 시창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金相鉉, 「石佛寺 및 佛國寺의 研究-그 創建과 思想的 背景-」, 『佛敎研究』 2, 1986)가 있다.

23) 김복순, 앞의 논문, 2006.

반영한다.

탑상편에 등장하는 관음상은 그 경전 배경이 단일하지 않았다. 衆生寺의 대비상은 11면관음보살상으로 추정된다. 남조시기 혹은 당대 張僧繇가 11면관음보살을 사실적으로 그린 사람으로 소개하고 이가 신라로 와서 이 절의 대비상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신라말 崔殷誠이 아들 낳기를 빌었고 이 때 얻은 아이를 견훤의 습격으로 혼란할 때 다시 보호를 기원하여 아기를 보전한 영험이 있다. 栢栗寺의 대비상은 효소왕대 국선 夫禮郎과 天尊庫의 거문고와 피리를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한 영험을 보인다. 민장사 관음보살에는 경덕왕대 가난한 왕경민 보개의 아들을 찾게 해준 영험이 있다. 芬皇寺 좌전 북벽의 천수대비상은 경덕왕대 漢岐里的의 여인 希明의 아기 눈이 먼 것을 고쳐주는 영험을 내렸다. 이 상은 率居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²⁴⁾ 洛山の 二大聖은 곧 白衣觀音과 正趣觀音菩薩을 말하는데, 관음 진신 상주처의 영험으로 구도의 길을 제시한다.

중생사 11면관음보살상은 『十一面觀世音神呪經』에 근거한다. 11面心呪의 면을 중심으로 하여 일컫는 관음으로 신라 통일 직후 智仁과 道倫이 각각 『十一面經疏』를 찬술한 사실로 보아 신앙 뿐 아니라 경의 연구까지도 있었다.²⁵⁾ 분황사 천수관음상은 『千眼千臂觀世音菩薩多羅尼神呪經』에 나타난다. 모두 아이를 보호하고 질병을 낮게 하는 영험을 보인다. 낙산에 봉안된 백의관음과 정취보살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입각한 구도의 길을 제시한 관음보살이다. 백의관음은 곧 水月觀音으로 고려시대에 유행한 수월관음 畫佛이다. 그 그림 구성에 善財童子가

24) 박광연, 『新羅 法華思想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 148.

25) 金煥泰, 「新羅의 觀音思想」, 『佛教學報』 13, 1976.

구도하는 모습으로 낙산의 진신 상주를²⁶⁾ 묘사한 내용과 일치한다. 正趣菩薩은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29번째로 만나는 知識이다.

백률사와 민장사의 관음상은 어떤 경전에 입각한 관음상인지 탐상편 기사로는 알 수 없다. 백률사의 관음은 국선과 천존고보물 실종을 구난하였고, 민장사 관음은 왕경민의 자식을 찾아주는 현세 구난의 영험을 보여준 점에서는 비슷하다. 영험을 보여 준 대상이 왕실과 왕경민으로 다르긴 하지만 그 관음상은 같을 것이다. 『법화영험전』 민장사 관음보살상 기록에는 자식의 소식을 몰라 초췌한 보개가 다행이 ‘普門示顯神通之力’을 듣고 민장사 관음상 앞에 나아가 7일간 정근기도하여 아들 장춘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민장사 관음보살상은 『묘법연화경』 보문품에 입각한 조상이다.

민장사에는 염불사의 진용이 소상으로 봉안된다. 『삼국유사』 피은편 염불사 조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남산의 동쪽 기슭에 避里村이 있다. 마을에는 절이 있는데, 인하여 ‘避里寺’라고 불렀다. 절에는 이상한 중이 있었는데, 성명을 말하지 않았다. 언제나 미타를 염송하여 그 소리가 성 안에까지 들려 360방 17만호에 들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 염불소리는 높고 낮음이 없이 낭랑하여 한결같았다. 이로써 그를 이상히 여겨 공경하지 않음이 없었다. 모두가 ‘염불 스님’이라 이름을 삼았다. 죽은 후에 흙으로 모습을 만들어 민장사 내에 모시고, 그가 본래 살던 피리사는 念佛寺로 이름을 고쳤다. 이 절 옆에 또 한 절이 있는데, 이름을 ‘讓避’라고 하였으니 마을로 인하여 얻은 이름이다.

민장사에 봉안된 스님 진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에서 알

26) 백의관음을 진신상주신앙으로 분류하였다(정병삼, 앞의 논문, 1982)

수 있다. 남산 동쪽 피리사에 살던 念佛師로 알려진 스님이 왕경 城中을 향해 미타를 염송하였다. 그 소리가 낭랑하게 한결 같이 들렸다. 그리하여 공경하게 되었고 그가 죽자 眞容을 흙으로 만들어 민장사 내에 모셨다는 것이다. 염불사는 미타를 염송한 점으로 보아 그가 염불한 것은 아미타불이며 아미타정토신앙을 성중에 널리 전파하려 하였다.

염불사 진용이 민장사 내에 모셔졌음으로 염불사는 민장사와 연고가 있었다. 그는 민장사 출신의 승려이다. 민장사를 중심한 왕경 내 신앙 분위기에 실망감을 가지고 남산 동쪽에 나와 있으면서 다시 왕성 내에 자신의 신앙관을 펴려고 했다.²⁷⁾ 절 내에 塑像으로 그를 추모한 것은 민장사가 염불사의 신앙을 수용하고 공경한 것을 반영한다. 소상으로 만들어 추모한 것은 신라 사회에서 元曉의 소상이 그가 활동한 바 있는 분황사에 모셔진 예가 있고 신라 하대에 興輪寺 금당에 국가불교에 기여한 十聖이 모셔진 예가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승려가 왕경 내 사원에 소상으로 추모된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민장사의 아미타 신앙 분위기가 크게 고조된 면을 반영한다.

민장사에 아미타 신앙이 고조된 시기는 언제일까? 앞서 전문을 옮겨 본 염불사조에 城中 360방 17만호에 미타 염불이 들리게 했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왕경 인구 17만호에 대한 기사는 『삼국유사』 기이 진한 조에²⁸⁾ 신라 전성시기 ‘京中 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라 하여 거의 18만호에 다다른다. 이어 35 금입택 명칭이 열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9개로 나타난다. 뒤이은 사절유택 조에도 현강왕대 성중에 초가집이 없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고

27) 이미 주보돈, 앞의 논문, 2010 에서 이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다.

28) 『三國遺事』 卷1 紀異2 辰韓.

하였다. 이로 보면 진한 조는 현강왕대 일괄 기사로 볼 수 있다.²⁹⁾ 염불사가 성중을 향해 염불한 시기는 바로 현강왕대이다.³⁰⁾

염불사가 城中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친 시기는 신라 집권층과 왕경민이 신라 최전성기로 착각한 현강왕대를 반영한 것이다. 『삼국유사』 기이 처용랑 망해사 조에는³¹⁾ 현강왕대 왕경의 사치와 퇴폐적 분위기가 잘 나타난다.³²⁾ 내일이 없는 환락의 삶에 대한 태도를 정토세계로 향하는 신앙심으로 돌려 퇴폐성을 반성·정화하려는 바람이 왕성 내 민의 현실적 구제 영험이 있는 민장사에서 염불사 소상 추모로 나타난 것이다. 민장사는 경덕왕대 『법화경』 보문품에 바탕 한 현세 구난의 관음신앙 중심에서 현강왕대 미타정도를 희구하는 신앙의 중심으로 시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존재한 사원이다.

이상으로 신라 왕경 내에 존재한 민장사의 성격과 신앙 추이를 살펴보았다. 민장사는 민장 각간의 사가위사에서 출발한 귀족 원찰이었으나 경덕왕대 관음보살상 영험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국왕과 왕경민의 사원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고, 신라 말에는 『묘법연화경』 보문품의 보문시현신통력에 의한 현세 구난의 관음신앙 중심에서 미타정도를 염불 신앙하는 중심 사원

29) 李基東, 「新羅 金入宅考」,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韓國研究院, 1980 참조. 전덕재는 1360방에 대해서는 誤記가 아니고 신라 하대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신라 왕경 연구』, 새문사, 2009, p. 157).

30) 金英美는 『삼국유사』 피은편 염불사조의 기사는 경덕왕대 혹은 그 보다 조금 앞선 시기로 보고 중대의 아미타신앙 사례로 파악한다(『新羅 中代の 阿彌陀信仰』, 『新羅 佛教思想史 研究』, 民族社, 1994).

31) 『三國遺事』 卷2 紀異2 處容郎 望海寺.

32) 李佑成, 「三國遺事 所在 處容說話의 一分析」,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으로 전환하여 왕경 내의 시대상에 대응한 사원이었다.

IV. 靈鷲寺의 창건과 지방 그리고 왕경

영취사는 신문왕대 재상 忠元公이 葺山國의 온천에 목욕하고 돌아오던 중 屈井驛에서 측근지심이 발동하여 세운 사찰이다. 측근지심이 일어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충원공이 굴정역 桐嶺野에 이르러 한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던 중 屈井縣廳 북쪽 우물에 쫓긴 꿩이 새끼를 보호하려는 처절한 모습을 쫓던 매가 측근히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충원공 자신도 측근지심이 발동하여 그곳 현청에 사원을 세울 것을 생각하고 국왕에 보고하여 ‘靈鷲寺’ 라 사명을 받아 현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이 사찰을 세운다.

영취사의 위치는 굴정역의 위치를 추정하면 찾을 수 있다. 이병도는 『新增東國輿地勝覽』 장기현 불우 조와 산천 조를 근거로 현재 영일군 장기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村上四男은 교통로와 관련하여 볼 때 현재 울산시 울주 방면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삼국유사』 영취사 조의 굴정역과 굴정현 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世宗實錄地理志』, 『增補文獻備考』 등에 보이지 않는다. 영취산의 위치를 고증한 일연은 협주에서 ‘영취산이 插良州 阿曲縣에 있다’ 하고 ‘아곡의 曲은 西라고도 한다. 또는 求弗, 屈弗이라고도 한다. 지금 울주에 屈弗驛을 두었으므로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다’ 고 하였다. 굴불역, 굴불현 지명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건치연혁과 역원 조의 屈阿火村, 屈火驛 등에 보이는데 弗과 火는 음상사로 보이므로 같은 지명으로 볼 수 있다. 충원공이 동래에서 온천 목욕 후 울산 방면으로 온 것이 타당하며 경주의 동북에 치우친 장기 방면은 아닌 것이

다.³³⁾ 일연의 영취산 지명 고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조의 기록을 검토한 견해가 타당하다.

위치 고증과 최근 발굴조사에 의하면³⁴⁾ 사지는 현재 울산시 청량면 울리 822번지 일원이다. 사지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와편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폐사지의 동서 양쪽에 2기의 석탑이 무너진 상태로 남아 있다. 동탑 근처에는 귀부도 1기가 남아 있으나 비신과 이수(水首)는 보이지 않는다. 동서 양탑의 남은 석재로 추정할 때 영취사지 쌍탑은 신문왕대 창건된 감은사지 쌍탑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균형미와 정제미가 뒤떨어지지 않는다.³⁵⁾ 영취사의 창건은 폐사지 석물로도 증명된다.

영취사 창건을 주청한 충원공은 신문왕 원년 상대등 眞福일 가능성이 크다.³⁶⁾ 재상의 창건 발원과 국왕의 사액, 그리고 현청을 옮기고 그 자리에 창사한 점 등은 신문왕대 지방 사원의 창사의도를 보여준다. 신문왕은 문무왕의 삼국통일을 마무리 짓는 과업을 안고 있었다. 통일과정에 등장한 공신들에 대한 제어, 그리고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지방제도의 개편 등이 그것이다.

신문왕은 왕정에 중대 성전사원을 통하여 왕실의 조상을 숭배하게 하여 권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에도 지배이념을 강조

33) 村上四男 撰, 『三國遺事考証』 下之一, 塙書房, 東京, 1994, p. 422.

34) 사지에서 ‘靈鷲’ 명 문자와가 발견되었고 현재 ‘울리 영축사지’란 이름으로 울산시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울산박물관, 『울산 울리 영축사지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3 ; 신형석, 「삼국유사를 통해 본 울산지역의 사찰」, 『울산대화강과 만난 불교』, 울산대국박물관 특별전도록, 2013 참조.

35) 전호태, 「울산지역 신라 불교유적의 현황과 과제」, 『제4회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술심포지움 신라의 불교와 울산』, 울산대학교 박물관, 2000. 10. 13.

36) 村上四男, 앞의 책, 1994, p. 421.

하기 위해 창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하나가 울주 방면의 영취사이다. 영취사 창건 동기는 측은지심의 발현이다. 꿩을 쫓던 때가 측은지심을 보이고 다시 재상도 그러한 마음을 내었다. 때와 꿩은 귀족과 지방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통일전쟁에 내몰려 피폐한 지방민을 위무하여 안정적으로 통치하려는 정치이념의 구현 장소로서 영취사를 창사한 것이다. 더구나 현청 바로 그 자리에 창사한 것에서도 그러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영취사가 창건된 아곡현에는 영취산이 있는데 이미 법화경을 외우고 신통력이 있는 스님이 살고 있었다. 문무왕 원년 伊亮公의 집 종이 출가하여 영취산령 辯才天女の使者 까마귀의 계시로 이곳에 와서 보현보살로 부터 戒를 받고 낭지의 제자가 되었다. 낭지가 바로 법화경을 외우고 신통력이 있는 스님이었다. 그는 이미 불교가 수용된 법흥왕대에 발을 붙였다고 하여 영취산에 머문 시기가 오래되었다. 신문왕은 영취사 창건을 통해 신라 초기 불교사상의 연원지의 하나인 영취산을 聖地化하여 포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낭지의 법화사상으로 상징되는 신라 초기 불교 연원지인 영취산은 산명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암시한다. 영취산은 석가가 법화경을 설법한 곳이며 석가가 가장 오랜 동안 설법한 마가다국 왕사성에 있는 산이다. 낭지는 중국 남조에 유학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의 법화경 독송은 지통과 원효의 교학기반에 영향을 주었다.³⁷⁾ 일연은 낭지가 머문 곳은 ‘赫木菴’으로 불리다가 ‘赫木寺’가 되었는데 『영취사기』에서 가섭불시기의 절터라는

37) 김복순, 「신라 중고기 불교와 법화경」, 『명예보다 求道를 택한 신라인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1,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구절을 인용한다.

영취사가 있는 지역은 이외에도 신라 초기 불교의 도래지, 선진지로서 흔적이 있다. 『삼국유사』 탐상편 황룡사 장육 조에 따르면 진흥왕대 황룡사를 완성한 후 얼마 되지 않아 河曲縣 絲浦에 큰 배가 한 척 나타나서 검사하니 거기에 황철 5만7천 근과 황금 3만분, 그리고 모각한 세 불상이 있었다. 칙문이 있어 거기에 이르기를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다 이루지 못하여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러 장육존상을 이루라’ 하였다. 국왕이 그 고을 성 동쪽의 높고 깨끗한 곳에 東竺寺를 세워 세 불상을 편안히 모시게 하고 그 금과 철은 수송하여 장육상을 주조함에 단번에 이루었다. 河曲縣은 앞서 살핀 영취사가 있는 阿曲縣과 같은 지역을 말한다. 영취사가 성립되기 전 진흥왕대 황룡사 장육상과 관련된 동축사가 있었다.

또한 탐상편 전후소장사리 조에 따르면 선덕왕 때인 정관 17년(643)에 慈藏 법사가 부처님 두골과 어금니와 불사리 1백 알과 부처님이 입던 붉은 깃에 금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을 가져왔다. 그 사리는 세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皇龍寺 塔에 두고, 한 부분은 太和寺 塔에 두고 한 부분은 가사와 함께 通度寺 戒壇에 두었으며 나머지는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다. 황룡사 구층탑 조의 刹柱記에도 같은 내용이 전한다. 태화사탑은 자장이 가져온 사리를 소장한 곳으로 알려진다. 태화사는 울주지역에 있었다. 일연은 탐상 황룡사구층탑 조에서 협주로 ‘태화사는 阿曲縣 남쪽에 있고 지금 울주이다. 또한 藏師(慈藏)가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탐상편 낭지승은 보현수 조에는 원효가 머물면서 낭지를 자주 찾아뵈고 낭지가 시켜 지은 『初章觀文』, 『安身事心論』 등을 지은 곳인 礪高寺가 영취산에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영취사가 신문왕대 창건되기 전에 굴정현 지역은

진흥왕대 성립된 동축사, 선덕왕대 대화사, 낭지가 머문 혁목암, 원효가 머문 반고사 등이 있었던 신라 초기 불교의 번성지였다. 신라로 불교가 전래되는 경로는 다양하였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울주는 해로를 통한 중국 남조 혹은 隋唐으로의 통로로서 불교 수용의 선진지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한다. 신문왕대 영취산명과 같은 영취사를 사명으로 굴정현청치에 창사한 이유는 이러한 신라 초기 불교의 번성지였던 굴정현 일대를 영취사를 중심으로 다시 선양하려는 의도에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법화사상의 고양과도 연관될 수 있다.

법화사상을 편 낭지의 영향을 받은 智通과 원효가 각기 이곳을 떠나 신라 화엄학과 왕경의 교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지통은 의상의 문하에 들어가 화엄사상을 이해한 『錐洞錄』을 짓고, 원효는 왕경에서 다양한 敎相을 이해하는 강론과 저술을 하였다. 영취산은 신라 초기 불교 번성지로서 신라 통일기의 불교 교학 발전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 넣는 연원지의 역할을 한다.

영취사는 울주 일대의 영취산을 포함한 불교 기반을 포용하여 신문왕대 국왕의 명으로 창사된 만큼 그 사상적 영향은 다시 원성왕대에 왕경을 향해 다시 발휘된다. 그러한 역할을 한 고승은 緣會였다. 그에 관해서는 피은편 緣會逃名 文殊帖 조에 서술되어 있다. 고승 연회는 영취산에 숨어 살면서 언제나 법화경을 읽고 普賢觀行을 닦았는데 원성왕이 불러 國師로 삼고자 하였다. 스님이 피하였으나 영취산의 文殊大聖과 변재천녀의 권유로 수락하고 대궐로 나아가 국사로 봉해졌다.

연회가 영취산에 머문 곳을 일연은 협주에서 ‘지금의 靈鷲寺의 龍藏殿이다’ 고 하였다. 고려시기도도 존재한 영취사의 龍藏殿을 지목한다. 이는 『영취사기』의 자료에 근거한 주석이다. 연

회는 영취사 출신 승려이며 법화사상을 깊이 이해한 고승이다. 연회가 國師로 봉해져서 왕경으로 나아간 것은 당시 불교계의 새로운 사상적 혁신이 필요한 것을 반영하고 그 혁신할 내용으로 법화사상에 다시 주목한 것을 말한다.

신라에서 국사제도는 신문왕대 문무왕의 顧命에 따라 응주 출신 憬興을 國老로 삼아 三朗寺에 주석케 하여 백제 지역을 위무하려는 데서 시작한다. 효소왕대에 국사 惠通은 왕권에 도전하는 자의 원망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경덕왕대의 국사 迎如는 그 족속과 성씨는 알 수 없으나 덕과 행실이 매우 높았다. 원성왕이 연회를 국사로 봉한 이유는 그의 法華經을 통한 상서로운 이적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연회가 국사로 나아간 이유가 충분하게 되지 않는다.

원성왕은 중대 왕권이 무너지고 새롭게 들어선 국왕이다. 그는 중대의 무열왕계가 사라지고 새롭게 부활한 중고기 왕통을 이었다. 때문에 새로운 정치세력과 이들과 연계된 불교계를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에 법화경의 一乘 사상을 강조하여 정치세력과 불교계를 융화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려 하였다.³⁸⁾ 한편 연회의 보현관행이라는 실천적인 면이 국사로 발탁된 이유가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다.³⁹⁾ 연회가 머문 영취사는 朗智, 智通, 元曉 등의 법화사상 전통을 간직한 곳이다. 특히 연회는 여기서 남지의 전기를 지어 세상에 유통하였다. 연회가 법화사상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 재해석하고 숙성하여 왕

38) 이에 대한 사상적 성격과 시대 배경 등의 분석은 곽승훈, 「신라시대 전기의 신정권과 법화사상」, 『韓國思想史學』 32, 2009 ; 곽승훈, 「연회의 보현관행과 피은」, 『명예보다 求道를 택한 신라인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1,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참조.

39) 박광연, 앞의 논문, 2009.

경으로 다시 나아간다. 일연은 연회가 사상적으로 숙성을 한 곳을 영취산의 文殊岾, 阿尼岾으로 성지화 하였다. 따라서 영취사는 법화사상 연원지의 중심사원으로서 위상을 지닌다.

영취사는 신문왕이 그 이전부터 울주 일대 신라 초기 불교번성지의 전통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창사한 것이다. 특히 영취산의 법화사상 연원지의 위상을 이은 만큼 사명인 영취사도 그렇게 이해된다. 이 지역의 법화사상은 남지에서 연원하여 지통, 원효 등이 왕경과 그 부근에서 와서 화엄 사상 등을 더하여 다시 왕경으로 나아가 신라 교학 발전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중대를 이어 하대를 연 원성왕대의 정치사회적 요구에 따라 영취사에 머문 연회가 여기의 법화사상 전통을 이어 시대에 부응할 법화사상으로 숙성시켜 왕경의 대궐로 나아가 국사로 책봉되었다. 영취사는 법화사상 연원지의 위상을 지니고 고승들이 와서 그 사상을 숙성하여 다시 왕경으로 나아가 신라 불교계에 중고말, 중대초의 교학발전과 하대초의 정치사회에 사상적 영향을 끼친 법화사상의 숙성지이다.

V. 맺음 말

『삼국유사』 탐상편 민장사, 영취사 두 사원을 통해 신라사회에서 사원의 왕경과 지방민에 대한 기능의 일면을 이해하였다. 일연이 쓴 두 사원 관련 자료의 원천자료를 검토하여 『삼국유사』의 다른 편목 관련 자료를 종합하였다. 그리고 민장사, 영취사의 성립과 성격 변화, 영험을 통한 신앙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탐상편은 일연이 영험을 통해 사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편목한 것이다. 민장사, 영취사 조의 자료와 그 근거 자료의

원천을 추적한 결과, 민장사는 『민장사기』가 그 원천 자료이다. 피은편 염불사 조의 것도 같은 자료에서 나왔다. 탐상편 영취사에 관해서는 『영취사기』가 그 근본자료이고 영취사 창건, 그리고 피은편의 영취산에 머문 낭지, 연회 등의 고승 관련 내용도 여기에서 함께한 것이다.

민장사는 민장 각간이 사가위사한 귀족원찰이었다가 경덕왕대 관음보살 영험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국왕과 왕경민의 사원으로 바뀌었고, 신라말에는 현세구난의 관음신앙 중심에서 미타정도를 염불 신앙하는 중심 사원으로 전환하여 왕경 내의 말세적 시대상을 극복하려는 왕경민의 사원이 되었다.

영취사는 신문왕이 울주 지방민을 위무·지배하려는 의도와 영취산의 법화사상 연원지의 위상을 수렴하려고 사명도 영취사로 하였다. 이 지역의 법화사상은 낭지에서 연원한다. 지통, 원효 등이 그 사상을 수용하여 다시 왕경으로 나아가 신라 교학 발전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영취사에 법화경과 보현관행을 수행한 연회는 하대를 연 원성왕대의 정치사회적 요구에 따라 왕경의 대궐로 나아가 국사로 책봉되었다. 지방 사원 영취사는 법화사상 연원지와 속성지의 위상을 지니고 왕경 사회에도 사상적 영향을 끼쳤다.

『삼국유사』의 기록만으로 민장사와 영취사가 갖고 있는 시대적·신앙적 의미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라 사찰 전반과 보다 넓은 사료의 검토를 통해 본고에서 찾아 낸 사실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저서

- 김창석,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연구』, 일조각, 2004.
- 울산박물관, 『울산 울리 영축사지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3.
- 齋藤 忠, 『朝鮮古代文化の研究』, 地人書館, 東京, 1943.
- 전덕재, 『신라 왕경 연구』, 새문사, 2009.
- 村上四男 撰, 『三國遺事考証』 下之一, 塙書房, 東京, 1994.
- 許興植, 『眞靜國師와 湖山錄』, 民族社, 1995.

2. 논문류

- 高榮燮, 「『삼국유사』 「홍법」과 「탑상」의 성격과 특징, 『『삼국유사』 「홍법」 편 연구 “삼국의 초전불교와 그 특징”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5,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 곽승훈, 「신라하대 전기의 신정권과 법화사상」, 『韓國思想史學』 32, 2009.
- 곽승훈, 「연회의 보현관행과 피은」, 『명예보다 求道를 택한 신라인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1,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 金杜珍, 「新羅下代の 五臺山信仰과 華嚴結社」, 『伽山李智冠 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 1992.
- 金福順, 「新羅 五臺山 事蹟의 形成」, 『江原佛教史研究』, 小花, 1996.

-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 왕경의 구조와 체계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7, 2006.
- 김복순, 「신라 중고기 불교와 범화경」, 『명예보다 求道를 택한 신라인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1,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 金相鉉, 「石佛寺 및 佛國寺의 研究-그 創建과 思想的 背景-」, 『佛敎研究』 2, 1986.
- 金英美, 「新羅 中代의 阿彌陀信仰」, 『新羅 佛敎思想史 研究』, 民族社, 1994.
- 金煥泰, 「新羅의 觀音思想」, 『佛敎學報』 13, 1976.
- 문명대, 「三國遺事 塔像篇과 一然의 佛敎美術史觀」, 『강좌미술사』 1, 1988.
- 박광연, 『新羅 法華思想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7.
- 朴龍雲, 「開京의 部坊里制」,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 辛鍾遠, 「新羅 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 신형석, 「삼국유사를 통해 본 울산지역의 사찰」, 『울산대회강과 만난 불교』, 울산대곡박물관 특별전도록, 2013.
- 梁銀容, 「高麗 了圓撰 法華靈驗傳의 研究」, 『文山 金三龍博士華甲紀念 韓國文化의 圓佛敎思想』, 1985.
- 尹善泰, 「新羅의 成像寺院과 今荷臣」, 『韓國史研究』 108, 2000.
- 李基東, 「新羅 金入宅考」,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韓國研究院, 1980.

- 李基白, 「古代政治思想」, 『韓國思想史大系』 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79.
- 李基白, 「三國遺事 塔像篇의 意義」,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7.
-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 寺院의 官寺的 機能」, 『韓國史研究』 43, 1983.
- 李佑成, 「三國遺事 所在 處容說話의 一分析」, 『金載元博士回甲 紀念論叢』, 1969.
- 張忠植, 「『三國遺事』 三所觀音考」, 『天台宗田雲德總務院長回甲 紀念 佛教學論叢』, 1999.
- 張忠植, 「『三國遺事』 塔像篇 體制的 檢討」, 『東岳美術史學』 2, 동악미술사학회, 2001.
- 전호태, 「울산지역 신라 불교유적의 현황과 과제」, 『제4회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술심포지움 신라의 불교와 울산』, 울산대학교 박물관, 2000.
- 鄭炳三, 「統一新羅 觀音信仰」, 『韓國史論』 8, 1982.
- 주보돈, 「『三國遺事』 ‘念佛師’ 條의 吟味」, 『명예보다 求道를 택한 신라인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1,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 秦弘燮, 「『三國遺事』에 나타난 塔像-皇龍寺塔像을 중심으로-」,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洪承基, 「觀音信仰과 新羅社會」, 『湖南文化研究』 8, 1976.
- 洪潤植, 「『三國遺事』와 塔像」, 『佛教學報』 17, 1980.